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236~236p 번호 : 54	문제-본문	<p>[해설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A와 D로 구성된 활동경로는 정상의 경우 13일, 속성의 경우 10일이 소요된다.</li> <li>· C경로의 경우 정상 활동은 12일이 소요되며, 속성활동은 10일이 소요된다.</li> <li>· B와 E로 구성된 활동경로는 정상의 경우 14일, 속성의 경우 <b>12</b>일이 소요된다.</li> </ul> <p>·가장 긴 경우는 B와 E로 구성된 경로이며 14일이 소요된다. 하루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B의 경우 30만원, E의 경우 25만원이 소요되므로 E활동을 줄여야 유리하다.</p>	<p>[해설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A와 D로 구성된 활동경로는 정상의 경우 13일, 속성의 경우 10일이 소요된다.</li> <li>· C경로의 경우 정상 활동은 12일이 소요되며, 속성활동은 10일이 소요된다.</li> <li>· B와 E로 구성된 활동경로는 정상의 경우 14일, 속성의 경우 <b>11</b>일이 소요된다.</li> </ul> <p>·가장 긴 경우는 B와 E로 구성된 경로이며 14일이 소요된다. 하루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B의 경우 30만원, E의 경우 25만원이 소요되므로 E활동을 줄여야 유리하다.</p>
238~238p 번호 : 56	해설	<p>56. 문제 생략</p> <p>[해설]</p> <p>경영참가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스칸론플랜(Scanlon Plan)</li> <li>- 경영참가제도 중 <b>자본</b>참가의 한 유형이며 집단성과배분제 중의 한 유형이다.</li> <li>- 실제인건비가 표준인건비보다 적을 경우 절약분을 집단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.</li> <li>·종업원지주제도</li> <li>-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제도이며 우리사주조합 등을 결성하여 회사의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.</li> <li>- 배정받은 종업원은 주식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된다.</li> </ul>	<p>56. 문제 생략</p> <p>[해설]</p> <p>경영참가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스칸론플랜(Scanlon Plan)</li> <li>- 경영참가제도 중 <b>이익</b>참가의 한 유형이며 집단성과배분제 중의 한 유형이다.</li> <li>- 실제인건비가 표준인건비보다 적을 경우 절약분을 집단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.</li> <li>·종업원지주제도</li> <li>-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제도이며 우리사주조합 등을 결성하여 회사의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.</li> <li>- 배정받은 종업원은 주식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된다.</li> </ul>
333~333p 번호 : 36	해설	<p>[해설]</p> <p>조도는 광속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.</p> <p>조도 = 광속/거리<sup>2</sup> = <b>1/22</b> = 0.25lux</p>	<p>[해설]</p> <p>조도는 광속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.</p> <p>조도 = 광속/거리<sup>2</sup> = <b>1/2<sup>2</sup></b> = 0.25lux</p>
366~366p 번호 : 09	문제-본문	<p>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, 관계수급인,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<b>2</b>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).</p>	<p>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, 관계수급인,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<b>1</b>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).</p>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